



한인회보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4093 Seattle, Wash. 98104
Sung Kil Kim Publisher
Editor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VOL. 3 NO. 4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UNE 1976

씨애틀 - 밴쿠버 연례 야유회

씨애틀과 밴쿠버 교민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정기 야유회가 오는 6월 26일(토요일) 오전 11시부터 Woodland Park에서 개최된다. 지난 1967년 부터 매년 씨애틀과 밴쿠버간에 장소 옮기면서 양쪽 한인회가 개최해 온 이 행사는 올해로서 십주년을 맞게 되는데 순번제에 따라 10주년 기념행사를 씨애틀에서 갖게 된다. 올해에는 교포 여러분의 보다 많은 성원이 기대되는데, 자세한 행사계획 및 장소약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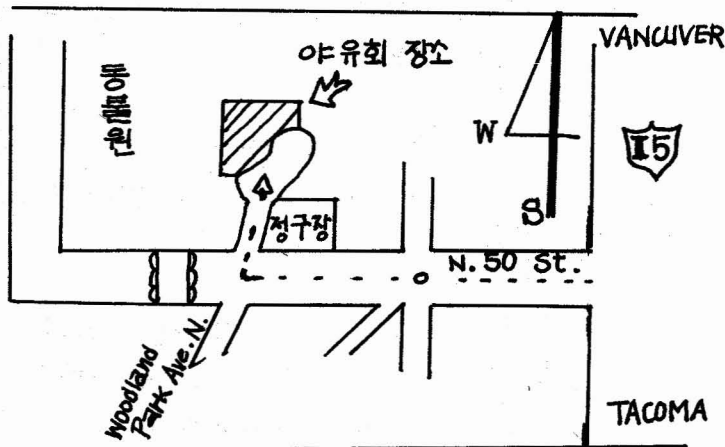
때: 1976년 6월 26일(토요일) 오전 11시부터

곳: Woodland Park Ave. N. 와 N. 50th St. 과 만나는 지점 (약도 참조)

장식: Washington주와 Vancouver, Canada 에 거주하는 한국인 전 가족.

음식: 각자 준비 (독신자를 위하여 여유있게 준비해 주기 바람.)

주최: Seattle - Washington 주 한인회
Vancouver 한인회



경기종목

배구 도치볼 배드민턴
공클리기 릴레이 줄다리기
보물찾기 응원 * 축구

◎ 단합을 위한 목적 ◎

♣ 친선을 위한 경기 ♣

< 이 방자여사 Seattle 내방 >

오랫동안 한국에서 정신 박약자와 신체불구아동을 위한 지원·기관단체인 자행원과 명회원을 이끌어 오신 영천왕후 이 방자여사께서 미국의 정신 박약자와 신체불구자들을 위한 기관식찰과 자금모집을 위하여 미주를 순방하시는데 5월 31일부터 6월 3일에 씨애틀을 다녀 가셨다. 체재중 6월 18 7시 30분부터 Center for Asian Arts (622 S. Washington 와 7 Astor 호텔)에서 정신 박약아동들의 불굴의 의지를 담은 영화 2편의 소개와 강연을 가졌고, 6월 28 6시 30분 부터는 시내 Olympic Hotel Grill 에서 환영 Dinner를 한인회에서 주관하여 가진바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미국의 권위있는 크립을 방문하여 하시는 사업을 소개하시었으며 특히 교포의 정신박약자와 불구아동들에 대한 도움에 교민들의 적극적인 여뜻한 사랑을 호소하였다. 모국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 믿으며 원하시는 분은 최 장자여사 (367-0183)께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이 여사는 앞으로 시카고, 보스턴, 뉴욕, LA등을 순회하시며 한국의 정신박약아동들을 위한 자금 모금 순회를 계속하실것이라 한다.

< 4국 유도대회에 한국 고교생팀 참가 >

미국 유도연맹(U.S. Judo Federation) 주최로 지난 5월 16일(日) Kentridge High School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4개국의 국제 중고교 유도시합을 가졌는데 한국에서는 12명의 대표선수 가 참가하여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이 선수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물심양면 후원해 주신 여러 교민 여러분들과 식사비로 \$50.00를 기부해 주신 필신씨께 감사 드린다. 선수단 일동도 시합전날 한인회에서 배려해준 야외 환영파티와 교포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과 응원에 감사한다고 전하여 왔다.

- 생활 안내란 -

이 달에는 동양계의 사회사업단체인 Washington State Asian American Advisory Board에서 책임자로 일을 보시는 Mrs. Kyung Hua Pleske (허경화여사)와 상담하며 한인들이 받을수 있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민은지 얼마 안되어 고난을 겪고 있는지 병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운 문제로 단기간 역경중에 있는 경우 이 단체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1. 식료품 - 식료품 은행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12시부터 3시 사이에 식료품을 무료로 공급한다.
2. 의류 - 월, 수, 금요일 1시부터 4시 사이에 의류품을 제공한다.
3. 가정 문제 상담
4. 영어 회화 강습
5. 직장과 기술 문제 상담
6.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복지 혜택 (Welfare)에 대한 상담
7. 교통 편의 제공
8. 7살 부터 17살 까지의 청소년을 위한 활동

이 기관은 2450 Star Lake Rd., Federal Way, Wa. 98003에 본관을 두고 West Seattle과 Lacey에 분관이 있어서 월 ~ 금요일 8시 30분 부터 4시 30분 까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단체는 정부의 도움과 뜻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재원으로 협조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원하는 분은 세금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기부금을 상기 주소로 보내 주어서 역경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바라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은 839-8151이나 한인회 봉사부 523-7057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 봉사부에서는 생활 안내란에 실릴 좋은 기사나 정보를 환영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의문점을 문의해 주시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알려드린다고 한다.

**집 없으면 집을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김 현 중 부동산 에서
 (FRANK) HYUN CHOONG KIM

* 무료봉사: 값싼 이자를 양산 해드리고,
 * 무료상담: 정확한 가격을 해드립니다.
 * 취급종류: *주택 *아파트 *호텔 *도지
 *점포 *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0112

- 이민자 문제 상담란 -

이 달에는 한국 방문에 대해서 기재한다.

- 한국에 방문할수 있는 자격
 1. 영주권 소지자로 1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자.
 2. 정규학생
 3. 시민권 소지자
- 수속 절차
 1. 영주권 소지자
 - 여권, 일시 귀국 허가 신청서 1매, 재외국민등록서 1매, 그리고 사진 1매를 San Francisco 영사관에 보내어 귀국허가를 받는다. Visa(비자)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 3불과 반신용 봉투에 우표를 부착해서 동봉한다.
 2. 학생
 - 상기한 영주권 소지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와 학교에서 발부한 재학 증명서를 같이 영사관에 보내어 허가를 받는다.
 3. 시민권 소지자
 - 미국 정부에 속한 여권과 (915 2nd Ave. Tel.: 442-7944)에서 우선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수수료 13불과 여권용 사진 2매가 필요하다. 여권을 발급 받은 후 상기한 영주권 소지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동봉해서 입국 허가(Visa)를 받는다.

• 기간
 Visa는 6개월간 유효하나 단체 관광으로 여행할 경우 1달, 2달, 혹은 3달로 기간이 제한된다.

- 주의점
 1. 영주권 소지자로 미국에 체류한 지 1년이 못 되었어도 한국에 방문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경우(결혼, 부모님 상사등) 서류를 첨부해서 귀국허가를 받을수 있다.
 2. 영주권 소지자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 여권은 무효가 되지만 미국 이민국에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r extension of permit to reenter the U.S. (미국 재 입국 허가 신청서 혹은 연기 신청서), Form 1-131 (Rev. 9-27-75) N을 받고 가면 1년 또는 2년까지 Visa가 유효하여 재 입국했을때 미국 영주권도 계속 인정을 받게 된다.

< 역대 한인회상 간담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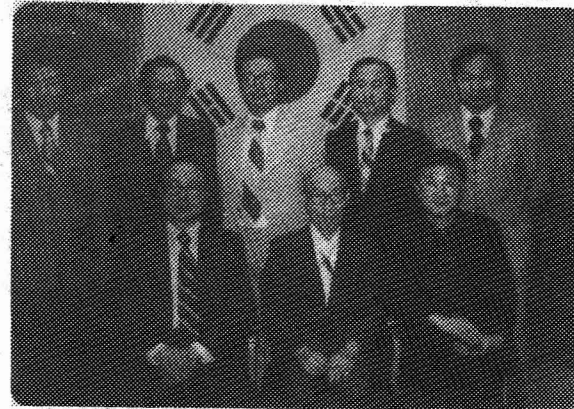
일시 - 1976년 5월 7일 오후 8시

장소 - 한인회 사무실

참석자 - 초대회장 : 이창희, 2대 : 이 선복
 3대 : 전계상, 4대 : 이 현기
 5대 : 한만섭, 6대 : 구법희
 7대 : 신호법

현 한인회 회장(김삼길)과 임원들

사회 - 교육부 김 정부



간담회 내용 요약 (존경 생략)

사회 : 본 회를 처음 시작할때의 회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창희 : 일부 회원들은 호응하였으나 일부는 별로 흥미를 갖지 않았다.

사회 : 1 당시 한인회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였습니까?

이선복 : 우리나라 중요 국경일에 대한 행사와 아리랑의 밤(망년회), 한국과 교민과의 증계 역할(한국에서 오신 손님 접대, 환송, 강연회등)을 하였다.

사회 : 회원들의 호응은 어느 정도였는지요?

전계상 : 회원들의 호응은 15~20% 정도였다. 그러나 한인교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사회 : 한인회보는 어떻게 발행되었습니까?

한만섭 : 자각 발행했으며 특히 회보를 통하여 회의 소집 관계등을 알렸으며 모임을 적게 갖고 회보를 발행하는데 심의를 다 하였다.

사회 : 4대 회장 이현기씨는 현 이사장으로 계 시므로 나중에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회장 직에 있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구법희 : 주소를 모은것 (약 200가구)과 교포들의 애로 사항들을 해결해야 할 때와 여락사항이 있을때 전달하는 문제등....

사회 :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일하셨습니까?

신호법 : 회관 건립관계와 아리랑의 밤(망년회). 특히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으로 회관 건축 위원회에서 영화상영과 캔디상자를 한 바 있다.

사회 : 현 임원에 대한 건의 사항이라면 어떤것이 있는지요?

이창희 : 한인회 임원은 희생적으로 일을 해야 하며 회관 건축 자금을 대한 모금 운동은 다시 한번 전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선복 : 현 임원들의 책임완성과 회관 건립을 하는데 활동 전개에 모든 심의를 배풀기를 바란다.

전계상 : 회관 설치,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회칙에 기입 하여 명확히 하여 주기를 바라며, 목적설정과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 주길 바란다.

한만섭 : 한인회 설립목적에 위배함이 없이 창조력으로 권력이나 이권을 배제하고 나가길 바라며, 회관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관설치후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구법희 : 업무 부담을 잘려라고 한인회도 이제 정리의 으로 지위향상을 해야 하며 가능한 한 회관을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하기를 바란다.

신호법 : 임원들은 희생적인 것이며, 새로운 창조력으로 봉사적으로 일해주시길 바라며, 신·구 한인회 융합이 필요하고, 한인회관 기금 모금은 특정한 보다 모두 분활하여 모금하는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고 이어서 현 회장의 사업보 5면에 계속 ➡

헨리 장 여행사

• 초청 이민 숙소 안내 • 외국 방문 특별환인(마주)
 • 항공표 환불판매 • 이민자 문제 무료 상담

NORTHWEST. 대한항공. JAPAN AIRLINE

1370 Stewart Street / Suite 201, Seattle, WA. 98109

Bus: (206) 623-2975
 Res: (206) 623-7057 (24 hrs.)

Henry Chang Travel Service

◀ 생활 안내 ▶

보험에 대한 일반 상식

김철준

미국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우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편한 집이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조건에 눈을 돌릴 여유조차 없었지만, 미국 생활에 점차 익숙해 지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실감하게 되는 것이 각종 보험의 필요성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처음부터 최소한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지만, 건강, 생명 보험등 살아갈 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타 보험은 흔히 여유없는 생활 탓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의 종류에 대한 상식 부족으로 업주조차 내지 않는 예가 많은 실정이다. 보험에 대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우선 건강 보험, 자동차 보험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A. 건강 보험

사고와 질병은 누구에게나 가장 두려운 일상생활의 문제다. 특히 미국에서는 당장 활동을 하지 못해서 오는 직장과의 할계 엄청난 의료비용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가족중에 사고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갑자기 필요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는 것이 건강보험이다.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들어 주지만, 혼자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직장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보험을 들어야 한다. 건강 보험에는 가족수, 연령, 수입, 그리고 혜택의 등급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입원비만 부담해 주는 것, 수술 비용만을 부담해 주는 것, 혹은 입원비, 수술비, 기타 검사 비용을 지불하여 주는 등이다. 대체로 건강보험은 간단한 정기진찰, 치과 비용 (사고로 인한 경우는 예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으며 보통 50불 이하의 비용은 자기 부담이다. 해산의 경우 대개 400불 정도까지 혜택을 주며, 태어난 아기는 1년까지 자동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건강 보험을 들게 되는 경우의 부담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아이를 가진 3인 가족이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을 들 경우 매달 45불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참고로 보험료로 지불한 금액은 매월 150불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경제적 부담이 제일 문제이지만, 갑자기 병이나 스스로 지불할 때의 비용을 생각하면 보험료 부담은 실상 비싼 것이 아니며, 위에 든 혜택의 종류에 따라서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좌우간 건강보험을 사실경우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명히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B. 자동차 보험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인 까닭에 자동차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보험도 혜택의 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 (1인당 의료비 \$15,000과 차에 대해 \$5,000) 만을 해주는 경우 (소위 liability)는 미국에서 운전 경험 2년 미만의 경우 1년 동안의 보험료가 120~130불 정도이고,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상대방 의료 보험 1인당 1,5000불까지, 상대방과 자신의 자동차 보험은 5,000불 (도난, 화재 포함) 까지 해주는 경우 (소위 full coverage)는 연간 부담이 230불 정도이다. 보험료는 분기별, 반기별, 혹은 매월 분할 지불할 수 있는데, 연간 30불 정도 보험료를 더 지불하면 상기한 보험혜택의 2배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담은 좀 많으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full coverage를 드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경향이며 특히 2년 이하의 운전 경험 가진 경우에는 처음 보험료가 높다. 따라서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될 수 있으면 운전 면허를 빨리 얻어 경험기간을 쌓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필자: 뉴욕라이프 보험회사주)

집 매매는
안 병 용 부동산 으로
 씨애틀 838-2010, 타코마 927-2277

< 부인병 무료 진찰 >

타코마에 있는 오덕주 산부인과에서는 저소득 교포들에게 무료로 진찰을 실시하고 있는 바 많은 교포의 이용을 바라고 한다.

전화: 627-0909, 848-4453

3면에서 계속

교와 사업계획의 설명이 있은후 질의를 받고 나서 「한인의 단합을 위해서는 한인회 활동에 지도자들이 적극 참여 함으로서 성장하는 한인회를 지켜 주어야 하겠다」고 말하므로써 끝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체로 화관간접에 대하여 공동으로 관심을 모았으며, 처음으로 한 자리를 하게 된 이번 모임에 모두 많은 의의를 찾았다. 만년의 미소로서 성공리에 끝마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협동하는 한인사회 명망으로 이룩하자.”

<교육부 제공>

< 연대 총장 씨애틀 방문 >

국무임 초청으로 미국을 순방중 지난 5월 21~23일간 씨애틀을 방문한 연대총장 이우주 박사를 맞아 연대 동문회는 22일 Sea-Tac Motor Inn에서 환영회를 가졌고, 학생회에서도 23일 워싱턴 대학 학생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전에 하는 고객 여러분,
 저희 가구점에서는 친절과 신용 그리고 외상거래로 고객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부디 왕권 하시어 저희들의 좋은 재품들을 선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신형 가구
- 카터트
- T. V. SYLVANIA
- 각종 전기제품 HOTPOINT
- 침구 및 매트리스

SERTA

Hess Furniture 4
 3830 SOUTH M. ST. 위치 (약도)
 TACOMA, GR 4-8441
 DAILY 9 A.M. TO 6 P.M.
 Closed SUNDAY

※ 신속, 안전으로 무료운반.

Next to Safeway

< 에디 윤씨 변호사 개업 >

워싱턴 대학 법과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워싱턴주 법원판에서 일을 한 에디 윤 (Eddie Yoon) 씨가 한인회에서는 워싱턴주에서 처음으로 변호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인들을 위하여 여러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소망이고, 또 언젠가는 U.S. Senator가 되어 보고 싶다는 원대한 야망도 밝혔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은 SK2-9237로 연락하길 바라며 사무실은 6225 N. 35th, Tacoma 차렐에서.

< 김철준씨 New York Life 보험 개업 >

1974~75년 워싱턴주 학생회장으로 활동한 김철준씨가 보험업을 시작했다. 김씨는 경동고와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후 1972년 도미하여 워싱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올레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3대 보험회사의 하나인 New York Life의 워싱턴주 보험대리인으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 건강, 교육, 연금보험에 관해 교포 여러분들의 상담을 응하고 신용과 성실로서 봉사하겠다고.

< 한인회 활동 기금 모금 >

언제나 기금의 부족으로 많은 행사가 계획으로만 남아 있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해 오다가 지난 5월 8일 (토) 한인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여 이창희선생님들의 간단한 자원봉사를 하였다. 이에 대한 감사포서도 이선생님께서는 한인회에 \$200의 기금을 희사하여 주시었다.

김간판여사 회갑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학생과 교민, 그리고 방문하는 많은 군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30여년간을 헌신같이 잘 돌보아 주시는 이창희선생님의 부인이신 김간판여사의 회갑일이 5월 29일 3시부터 Sammamish State Park에서 약 200여명의 교민과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배풀어 졌었다. 김여사께서는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한인회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으로 한인들의 일을 도맡아 해 오신 분으로 널리 잘 알려진 분이시다.



번민

오 정숙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생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배운다. 사방이 고요한 밤중에도 조그마한 생각이 피리를 물고 머리속을 맴돌면 나는 평안한 마음조각으로 뒷단배에 생각들을 띄워서 보내는 양껏대로 항해하도록 내맡겨둔다.

나의 몸이 약해져서 그렇지 요즘 밤에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아침을 맞을 때가 가끔 있다. 처음엔 자야겠다는 의식때문에 괴로운 밤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고나면 신경이 더욱 예민해져서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일하는데 지장이 생기므로 어떠한 일로 안해서도 필요이상 고집하지 않으려고 감정을 조절한다.

이 밤에 나는 내가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사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또 선배님들을 생각해 본다.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들이고 나의 생활을 보다 보람되고 알차게 매꿔주는 분들이다. 이렇게 시간의 여유가 있는 밤이면 생각이 나는대로 이름들을 종이위에 써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원하는 기쁨을 경험한다.

나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있을때 나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다. 오늘 밤도 불면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줄 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사이에서 정을 주고 받으면서도 서로가 갖고 있는 갈등과 융합되지 않는 조건들을 놓고 자신을 억제한 채 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을 배운다. 나를 합리화 시키고 정당화 시키려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아도 나의 마음 속에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는것을 자인할 때 양심을 속일수 없다. 나에게 번민이 닥쳐올지라도 괴로워하지 않는것은 나의 잘못임을 알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내 일에 어떤 삼람이 올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된 밤은 지나가고 새벽동이 터오고 있다. 커튼을 열고 아침을 맞는다. 딸고 가까이서 새소리가 들려온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밤과 함께 보내고 태양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새날을 맞기를 원한다.

교회소식



◎ 한인 형제 교회 (담당 최용걸 목사. 전화 367-0183) 교인들간의 친목을 위한 야외예배를 6월 13일(일) 오전 11시 링컨파크에서 가잔다고 한다.

아동과 어른들을 재미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독신자들을 위하여 많은 음식도 준비되어 있어 공부에 사달라는 학생들의 많은 잡여를 바라고 있다. 또한 동교회에서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그박 3일간 Lake Island에서 하계 수영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일반교인 이외에도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목사관으로 연락주길 바란다고 한다.

◎ 선택 장노 교회 (1242 Des Moines Way S., Seattle, Wa.)

그동안 목회를 맡아 오시던 김 동형목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사직을 사임한후 공석중이던 자리에 안성진 목사님이 그 후임으로 오시기로 되었다. 안 목사님은 서울 영락교회에서 오랫동안 청소년 관계 지도 사역을 하였고 아동 심리학 방면에 여러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한다. 약 1년 반전에 미국에 오신 안 목사님은 현재까지 시카고에서 한인 교역자 협회 회장을 지낸바 있다.

五洲食品店
FIVE SEAS

집에서 만든 손
한국식 음식 영가르 판매

• Food Stamp 취급
• 주분 BH 수

상점시간
평일 10:30 - 7:00
토요일 10:30 - 6:00

주소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98125
TEL: 363-6850, 525-2925

남서지역

부동산
주력 아파트 건물
식당 상점 로지

DEL BIANCO REALTY Inc.
9455 35th SW, Seattle, Washington 98148

진 김
JEAN KIM
Associate
(206) 932-1515

Res. (206) 932-3595

원고 모집

본 한인회보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포사회에 바람직한 제안, 미국생활에서의 경험등 교포사회에 도움이 될 글과시, 수필등을 보내 주시면 성의껏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회보에 실릴 광고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발송처 - P.O. Box 4093
Seattle, Wa. 98104
문의전화 - 624-8930
784-4492

* 한인회에서는 여려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비켜하여 교포 여러분에게 민원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서류가 필요한 분이나 의문이 있는 분은 봉사부로부터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구인

• 7월 초에 씨아들을 출발하며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알래스카에서 일할 한국인 남녀를 구합니다. 남자 19명, 여자 1명. 회사부담: 왕복여비, 침식제공 (한식 가능) 시간당 3불 이상. 과외로 보너스가 있음. 1주 7일간 근무. 문의처: E.O.C. 의 Mr. 오 (전화: 725-8200)

• Sea-Tac 공항안에 있는 Duty and Tax Free Shop 에서는 일본어가 능통하고 영어가 가능한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은 Sea-Tac 공항안에 있는 Host International Inc. Personnel office (인사과)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433-5644, 433-5645로 문의.

필신 (PAULL SHIN) 부동산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 알맞은 주택알선
• 유리한 부동산 안내
• 아파트 건물 구입 소개
• 기타 상담안내

* 부동산을 매매 하실 때는 신용과 많은 이의를 보장하는 필신에게 문의 바랍니다.

시호범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PHONE
Bus. 365-6363
Res. 778-1972

11514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한인 회비 납부를 요망합니다.

와싱턴주 한인회는 와싱턴주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유익하게 쓰일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비가 쓰여지는 용도는 무한합니다. 한인회는 여러가지 새롭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재정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시는 회비는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서로 도우며 생활할상을 가져올수 있는데 필요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976년도 한인회비를 미쳐 못 내신분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부부 5불 이상, 학생 또는 독신자 3불, 금액과 주소,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여 수표나 머니오더를 사용하시고 현금 우송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를 내신 분에게 영수증을 보내 드리는것이 원칙이겠으나 편리상 대달 발행되는 한인회보에 그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영수증을 대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송처: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4093
Seattle, Wa. 98104

76년도 회비 납부자 명단

34. 김 일영	\$ 10.00
35. Alice C. Lee	5.00
36. Charles V. Lee	5.00
37. 김 명원	5.00
38. 이 은수	5.00
39. 전 금상	5.00
40. 박 재인	5.00
41. 김 일소	5.00
42. Mrs. Almo 형자	5.00
43. 임 병식	5.00
44. 전 종모	5.00
45. 구 법희	10.00
46. 한 상열	5.00
47. 박 경준	10.00
48. 전 계상	10.00
49. 오 덕주	10.00
50. 무 상학	20.00
51. Mrs. Margaret Y. Vice	3.00
52. 백영기	10.00



아리랑 바

새로운 밴드가 흥겨운 음악을 선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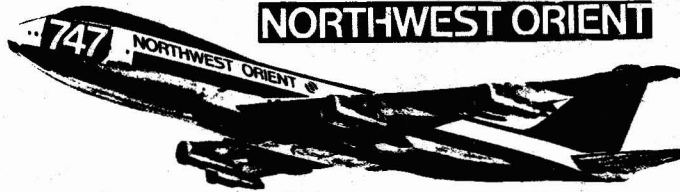
Open 7:00 AM to 2:00 AM
Sunday 12:00 to 12:00

728 Pine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1 . 345-9740

Res. 329-1896

대표 남성삼

- 최저요금, 친절봉사
- 이민수속 무료봉사
- 국내외 항공표 판매
-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대표 김창성

624-2227
624-2228
RES. 364-9934

Lloyd Bldg. - Room 606
503 Stewart St., Seattle, Wash. 98101

여행의 상담자

김익이행사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4093 - Seattle, Wash. 9810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